

제언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단상(斷想)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이 철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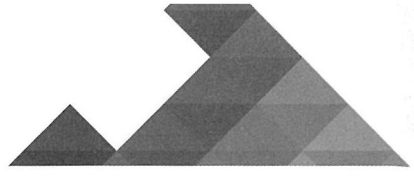
지난 7~8월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3년 전부터 준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단의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평가자로 몇 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 영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 영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늘 논란이 되어왔던 것 같다. 특히 건강진단 대상자이며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때때로 특수건강진단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로서 어찌되었던지 직업성 질병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몇 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받은 인상은, 평가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대처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평가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기관들도 있다는 것이다. 평가는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자 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각 평가기관의 종사자들이 평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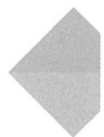
주관적 인상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보건공단에서의 최종 평가 결과는 각 지역별, 평가자별로 나타나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들의 편차까지도 표준화하여 발표될 것으로 본다.



올해 실시된 특수건강진단 평가기준은 여러 연구자들의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담당하였던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영역만 본다면, 개인별 건강진단(personal health examination)을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기준과 집단검진(mass screening)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큰 것 같았다. 출장검진과 내원검진 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과연 건강진단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 검사를 하는 임상적 이유나 근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절차를 이행하려면 대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업무와 인력이 필요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하고 업무적합성 및 관련성 여부의 파악, 그리고 더 나아가 사후관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량이 매우 큰데 반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문제였다.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건강진단을 매 한건 한건 처리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 각 기관의 현실이나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제시는 그렇지 못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평가를 할 때, 각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앞으로는 자칫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작업에 치중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이번 평가를 수행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특수건강진단의 목표에 더 근접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또 평가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배치 전 건강진단'의 문제이다. 몇 년 전 '채용 시 건강진단'이 기업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폐지되었는데, 지금 어떤 업종에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이 예전의 '채용 시 건강진단'과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몇몇 기관들에게는 '배치 전 건강진단'이 주요한

과연 특수건강진단기관 간에
무한경쟁을 통해 과연 근로자들의
건강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수입원인도 싶어 걱정되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면서 평가의 취지나 목적에
충분이 공감하면서도, 과연 특수건강진단기관 간의
무한경쟁을 통해 과연 근로자들의 건강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질 높은 의료는 결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공적 성격과 함께 특수건강진단의 질을 높이려면 중국에는
이에 수반한 비용지출이 요구되는데 우리 사회가, 더 직접적으로는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기 때문이다.

각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돌아보며 또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게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